

이란의 6월 대선 동향 및 시사점

1. 6월 대선 동향

□ 보수파와 개혁파간의 구도

- 다음 달 12일에 치러질 이란 대선까지는 1달이 채 남지 않은 상태로, 現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다소 우세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으나, 3월 중순, 개혁파인 하타미 前대통령이 개혁파의 표가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사비 전 총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출마 철회를 함으로써, 동 대선 결과예측이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음.
- 현재 유력한 대선후보는 보수파인 現아마디네자드 대통령과 개혁파인 무사비 前국무총리(과거 이란-이라크 전쟁기간 중 재임)와 하루비 前국회의장임.

☞ 주요 대선 후보 3인

1. 아마디네자드(Mahmoud Ahmadinejad) 現대통령 (보수파)
 - 前테헤란 시장을 역임했었던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2005년 前라프산자니 대통령과 경합하여 당선되었으며, 재임 기간 중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악화와 열악한 국내 경제 문제로 고전하고 있음. 現하메네이 국가 최고 지도자와 혁명군(Revolutionary Guard)의 지지를 얻고 있음.
2. 무사비(Mir Hossein Mousavi) 前총리 (개혁파)
 - 무사비 前총리는 1981-89년 동안 총리를 역임하였었고, 現하메네이 국가 최고 지도자와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.
3. 하루비(Hojjatoleslam Mehde Karrubi) 前국회의장 (개혁파)
 - 1989-92년, 2000-04년 간 이란 국회의 의장을 역임한 하루비는 현재 국가 신뢰당(National Confidence party)의 당수이고, 2005년 대선 당시 약 17%로 3위의 득표를 기록한 바 있음.

□ 후보자별 지지층과 한계

1)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: 하층민 지지 불구, 국제관계·국내경제 약점

- 아마디네자드 現대통령은 유세기간 중 3월 신년 휴일에 국민들에게 토마토를 나눠주는 등 기존의 강경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 바 있고, 최대 지지 기반인 빈곤층과 하부 중산층을 최대한 활용할 것임.
- 대선 라이벌들과의 경쟁 이외에도 빈약한 국가경제현황과 미흡한 정치개혁으로 인한 지지자들의 좌절 및 26%에 달하는 인플레이션률 등 열악한 국내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 이란 상당수의 지역에서 그의 인기가 하락하고 있는 등 다소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.
- 한편, 그의 지지세력 중 하나였던 "연합참여전선(UPF)"는 아마디네자드에 대한 대안을 찾는 다수와 여전히 그를 지지하는 소수로 분열된 상태이며, 여전히 자체 후보를 추대하지 못한 상태로 만약 이것이 실패할 경우, 다수의 지지자들이 무사비 前총리쪽으로 흐를 수 있음.

2) 무사비 前총리 : 유세 활동 고조 분위기이나, 대중적 인지도 여전히 미흡

- 무사비 前총리의 유세활동은 지난 4월 개혁 정당인 "이란 이슬람 참여전선"과 군무자 협의회가 그들 지지하면서 고조되었고, 한때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편이었던 광범위한 보수 연합인 "연합참여전선(UPF)"의 지원도 얻게 되었음.
- 무사비 前총리의 주요 과제는 그의 캠페인에 개혁 성향을 띤 젊은 층들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느냐는 것임. 특히 그는 이전에 대중 선거에 참가한 경험이 없어(1989년에 없어진 총리제도는 선거가 아닌 지명 체제임) 그가 얼마나 대선 캠페인을 잘 수행해낼지가 불확실함. 또한 과거 20년간 정치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이 대중들에 대한 인지도가 약한 상황임.
- 최근 이런 점을 인지, 젊은 층과 도시 유권자들에 다가가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, 이슬람 윤리가치와 복장을 강요하는 "계몽단(Enlightment Brigades)"을 폐지하기로 공약했으며, 경제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개혁적 성향을 강조하고 있음.

3) 하루비 前국회의장 : 언론층의 지지 불구, 舊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는 불리

- 최근 무사비 前총리보다 훨씬 활발한 정치활동을 벌이고 있으며, 하타미 前대통령의 후보 철회 이후 그의 승리가능성이 증가하였음. 그러나 그의 인기영합적인 정치적 수사들이 2005년 대선에서 3위의 득표를 거둘 수 있을 때처럼 잘 통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.
- 무사비와 유사하게, 그는 경제와 대학개혁 및 “계몽단” 폐지 공약 등을 통해 젊은 유권층들의 표심을 잡기위해 힘쓰고 있음. 또한, 개혁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, 지난 4월 12일 대중매체에 대한 정부 통제 종식, 지방분권화, 언어적, 종교적 소수에 대한 권리 확대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음.
- 하지만, 상당수 지역에서의 유세 기반과 언론의 지지에도 불구하고, 하루비는 그의 오래된 정치 활동으로 인해, 단지 이번 대선은 그의 차례라고 여기는 舊정치인으로 국민들에게 비취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임.

2. 대선 전망 및 시사점

□ 現대통령 다소 유리하나, 2차 결선 투표 가능성 농후

- 개혁과 후보 진영의 주요 이슈는 하루비나 무사비 중 누가 現대통령을 꺾을 가능성이 높은 가인데, 현재 상황에서는 무사비가 도시거주민과 젊은 층의 표심을 얻기에 좀 더 유리한 입장인 것으로 관측되어 지고 있음.
- 보수파인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재당선의 관건은 지지기반인 빈곤층의 총 집결 및 비지지층인 도시거주민 및 젊은 층의 투표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한 반사이익 여부로 요약되어질 수 있음.
- 전반적으로, 現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다소 유리한 고지에 있긴 하지만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과 맞물려 기존 권위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의 최근 성향으로 인해 6월 12일 대선에서 절대적인 압승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. 최종 결과는 개혁과 후보 1명과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둘이 맞붙는 2라운드 결선 투표에서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.

□ 당선 결과는 동국의 대외관계 및 국내경제 기조의 분수령이 될 전망

- 現아마디네자드 정부는 핵 이용은 고유한 주권임을 주장하며, 핵 개발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고 이는 동국의 경제 상황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. 금년 1월 출범한 미 오바마 정부는 이란의 핵 문제 및 대외관계 등과 관련하여 올 6월 대선까지 동국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유보하고 있는 입장임.
- 6월 이란 대선 결과에 따라서 대외관계 등에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개혁파 인사가 당선될 경우,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며, 이란의 국내경제 역시 현재의 폐쇄적인 상황에서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.

책임조사역 한종수(☎02-3779-6655)
E-mail : jshan@koreaexim.go.kr